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Mother's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박 성 연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 사 전 춘 애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졸 한 세 영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 : Park, Seong Yeon

Dept. of Consumer & Housing, Catholic Univ.

Lecturer : Jun, Chun Ae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M. S. : Han, Sae 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선행연구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Using questionnaire data from a sample of 236 mothers who have 4-6 years old children in Seoul, this study examined a model of how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influence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general, child's temperament affected mother's parenting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through its impact on parenting stress and, in turn, parenting behavior. Mother's temperament, in particular, mother's emotionality had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as well as parenting stress. As expected, mother's emotionality predicted more reject-authoritarian

parenting and this rela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mother's parenting stress.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temperament on parental functioning and the importance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1. 서론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부모의 양육행동은 국내외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 온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중요성이나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양육행동 유형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와 관련된 발달적 결과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심리적 변인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수의 연구들(임양미, 1994; 임희수, 1994; 천희영, 1993)은 대부분 아동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 등 특정한 단일 요인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정적 기질특성과 어머니의 기질이 자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과정모델(process model)이 소개된 이래 Abidin(1990)의 부모행동의 다요인적 결정모델(parenting stress model)이 제안되는 등 양육행동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이르러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발달적인 누적효과(cumulative)나 매개(mediating) 또는 중재(moderating) 효과에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는 점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달라져야 하리라 본다. 즉, 지금까지의 예측 변인으로서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종속변인으로서의 양육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다양한 심리적 예측 변인들은 어떤 것이며 또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이나 메카니즘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과정 변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동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왜, 또는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행동이 부모의 개인적 요인 또는 인성적 특성, 아동의 특성, 스트레스나 지지를 주는 환경적 요인의 세가지 범주적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Belsky(1984)의 과정모델(process model)을 토대로 양육행동에 관련된 선행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Belsky는 이 모델에서 세가지 큰 범주에 여러가지 변인들을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상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아동의 기질적 특성 및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 다른 사회관계망에서 겪는 스트레스 대신 양육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양육 스트레스가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고(Abidin, 1992), 현대 사회에서 가족지지체계가 축소됨에 따라 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Lazarus와 Folkman(1984)의 상호작용적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는 개인의 성격이나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사건 자체나 아동특성외에도 부모 자신의 특성이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모-자녀의 기질과 자녀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임양미, 1994; 임희수, 1994; 천희영, 1990; Milliones, 1978)나, 모-자녀의 기질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고성혜, 1994; 한세영, 1996; Levitt, Wever & Clark, 1986)만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아동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경로모형을 탐색하는데 있다.

II. 관련선행연구

1.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

Belsky(1984)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기질 특성에 따라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하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은 아동의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받게 되고 상호작용을 덜 받게 되는(입희수, 1994; Crockenberg & Acredolo, 1983) 반면, 아동이 순한 기질일 경우는 어머니가 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입양미, 1994; Milliones, 1978)고 한다. 그러나 Abidin(1990)은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동의 기질이 동일할 지라도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보일수도 있다. 한 예로, 어머니의 기분(mood)이나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Vendra & Belsky, 1993). 즉 Bettes(1988)에 의하면 우울성향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육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부모는 아동에게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덜 반응적이며, 비일관적 양육태도나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Conger, McCarthy, Yang, Lagey & Kropp, 1984; Forehand, Lautenschlager, Faust, & Grazino, 1985) 보고되고 있다.

2.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 스트레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해 또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이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질 경우(박응임, 1995; Abidin, 1990; Ctrona & Troutman, 1986; Dumas & LaFrenter, 1993), 그리고 아동이 지나치게 활동적일 경우(고성혜, 1994; Abidin, 1990; Barkley, 1981), 어머니는 아동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우울증 또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개인의 특성이나 지각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상호작용적 스트레스 이론(Lazarus & Folkman, 1984)에 근거해 보면, 어머니의 기질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서성을 지닌 사람은 같은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게 되어(Watson & Clark, 1984) 자녀를 보다 더 까다롭게 지각하므로서(Levitt, Wever & Clark, 1986)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고성혜(1994)도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가 불안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보고하여 어머니 자신의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다수의 학자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Luster & Okagaki, 1993). 예를 들어 Belsky(1984)는 양육행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모가 겪는 사회관계망에서의 스트레스를 언급하였으며, Simons, Beaman, Conger와 Chao(1993)은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성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Abidin(1990) 역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

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박응임(1995)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maltreatment)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련된 심리적 선행변인들로는 아동의 기질 특성 및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의 기질 →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성격 →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성격 → 스트레스의 연결관계를 규명하여 왔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기질이 각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시사되었으나,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들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또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가 이러한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아래의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은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 양육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4 - 6세의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 236명이었다.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5.1세였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3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93.9%였으며, 전업주부가 73.7%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94.4%였으며, 직업은 서비스/자영업(29.2%), 사무직/기술직(27.1%), 전문직/관리직(40.2%)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1990년의 교육별, 1993년의 직업별 인구분포자료(통계청, 1994)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은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1) 기질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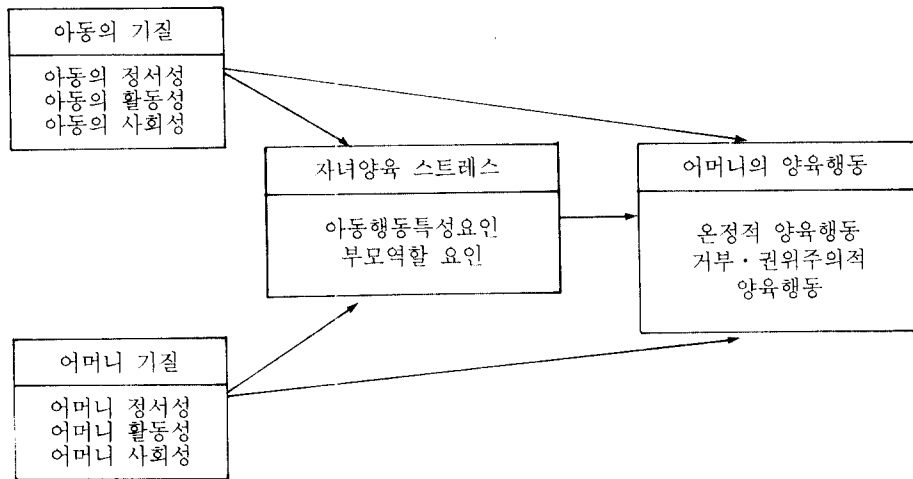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아동용 EAS와 성인용 EAS를 수정,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EAS척도는 본래 아동용, 성인용 질문지가 각각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 요인별 신뢰도가 낮아 전체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재구성한 후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어머니 기질 1문항, 아동 기질 1문항을 제외시켜 아동용 19문항, 성인용 19문항으로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성인용 기질척도와 아동용 기질 척도는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이 각각 $\alpha = .75$ 와 $\alpha = .61$ 였다.

Buss와 Plomin(1984)이 구분한 기질의 각 요인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서성: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말한다.

활동성: 활력과 민첩함에 관련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특성을 말한다.

사회성: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말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Crnic과 Greenberg(1990)이 개발한 PDH (Parenting Daily Hassles)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DH는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지각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만을 평가하였다. 또한 원래 PDH는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표현이 모호한 문항과 문항 내용상 대상 아동의 어머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한 후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식성이 까다롭고 반찬투정을 한다” 등과 같은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10문항과 “장난감이나 음식물 어지럽힌 것을 계속 치워야 한다” 등과 같은 부모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많이 느낀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행동특성요인은 $\alpha = .79$ 이며, 부모역할 요인은 $\alpha = .79$ 였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숙(1988)이 Schaefer(1965)의 기본 가정을 기초로 하여 수정·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숙의 양육태도 척도는 본래 7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크게 온정요인과 거부·권위주의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숙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된 어머니의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관계로 어머니가 양육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각 하위요인에서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되는 15문항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3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온정요인은 $\alpha = .81$ 이며, 거부·권위주의적 요인은 $\alpha = .83$ 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질문지 문항의 적절성 파악 및 최종 문항 확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1995년 9월 18일 부터 10월 2일에 걸쳐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조사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6개의 유치원과 유아

원에 다니고 있는 만 4 - 6세의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19부였으며 이 중 회수된 질문지는 289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잘못 표기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3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3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로는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기질, 어머니 기질,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기질, 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면, Baron과 Kenny (1986)의 제안대로 매개변인으로 생각되는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할 경우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약화되는지를 보기 위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어머니의 기질과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직접, 간접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1.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표 1〉에 기술통계와 함께 상관계수가 제시되고 있다.

〈표 1〉에서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정서성($r=.30$ $p<.001$)과 활동성($r=.14$ $p<.05$)은 양육행동 중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까다로울 때, 또한 활동적일 경우,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은 그 어느 것도 양육행동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질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아동의 정서성과 활동성이 부모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각각 $r=.21$ $p<.001$, $r=.16$ $p<.05$) 특히 아동의 정서성은 아동행동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도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r=.37$ $p<.001$). 또한 어머니의 정서성은 스트레스 두 요인에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 (각각 $r=.27$ $p<.001$, $r=.24$ $p<.001$) 아동이 까다로울 때는 물론 어머니가 까다로울 때 역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며(아동행동특성요인 $r=.35$, $p<.001$; 부모역할요인 $r=.32$, $p<.001$), 특히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5$ $p<.05$).

2. 매개변인으로서의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Baron과 Kenny(1986)의 매개과정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매개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질 특성과 스트레스, 양육행동과의 상호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분석 제안에 따라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변인의 매개과정에 관한 모델이 가정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기질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된 매개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인 양육행동에 대해 예언 변인인 어머니의 기질의 설명력이 매개변인(양육스트레스)이 통제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어머니의 정서성은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30$ $p<.001$). 〈그림 3〉에 의하면 이러한 영향력은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기질과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예언력의 유의성이 감소하므로써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가 매개한다는 것을 시

〈표 1〉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 236)

		아동의 기질			어머니 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1	2	3	4	5	6	7	8	9	10
아동 기질	1.아동의 정서성	---									
	2.아동의 활동성	-.06	---								
	3.아동의 사회성	-.05	.51***	---							
어머니 기질	4.어머니 정서성	.26***	-.08	-.02	---						
	5.어머니 활동성	.05	-.03	.05	.06	---					
	6.어머니 사회성	.09	-.04	.02	-.25***	.14	---				
스트 레스	7.아동행동특성요인	.37***	-.00	-.11	.27***	.04	-.02	---			
	8.부모역할요인	.21***	.16*	.07	.24***	.05	-.06	.71***	---		
양육 행동	9.온정적 양육행동	-.01	-.01	.01	-.04	.07	.10	-.15*	-.07	---	
	10.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10	-.06	-.01	.30***	.14*	-.11	.35***	.32***	-.52***	---
평균		2.96	3.57	3.52	2.71	2.98	3.58	2.53	2.62	3.74	1.85
표준편차		.74	.81	.76	.62	.68	.75	.75	.80	.49	.49

* p<.05 ** p<.01 *** p<.001

사해주고 있다(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beta=.21, p<.01$;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beta=.22,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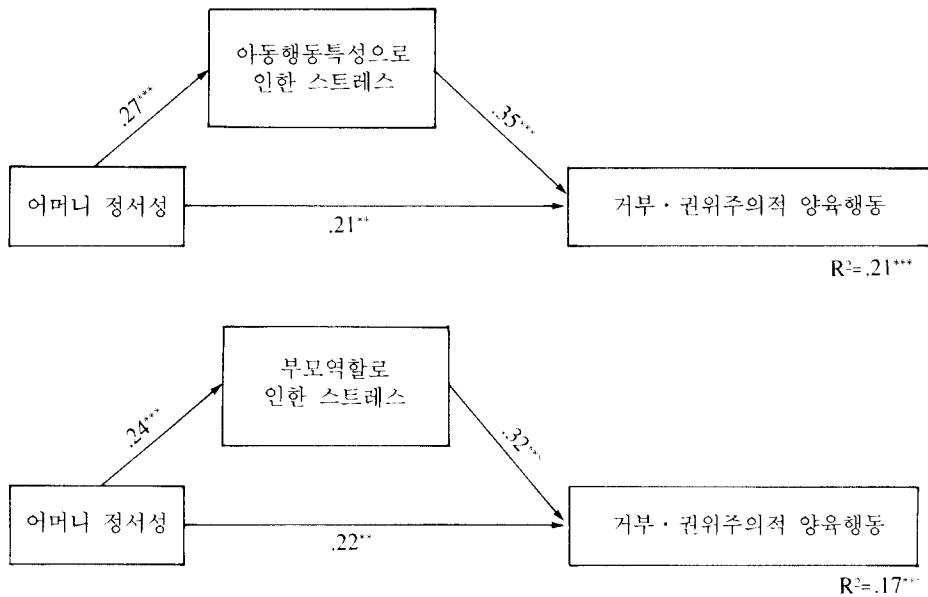
그러나 두가지 스트레스 요인 모두 유의도의 감소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아서 $p<.001$ 에서 $p<.01$ 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매개에 대한 통계적인 확인을 위해 Sobel(1982)의 공식을 적용한 결과 제 1요인(아동행동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은 $t=3.13, df=235, p<.01$, 제 2요인(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은 $t=2.39, df=235,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3.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영향력

Abidin(1990)의 주장처럼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 스트레스와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 양육행동에 대한 모든 예언 변인들의 직접·간접적 영향력을 경로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정서성 요인과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성은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므로서 간접적으로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성은 직접적으로



〈그림 2〉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정서성의 예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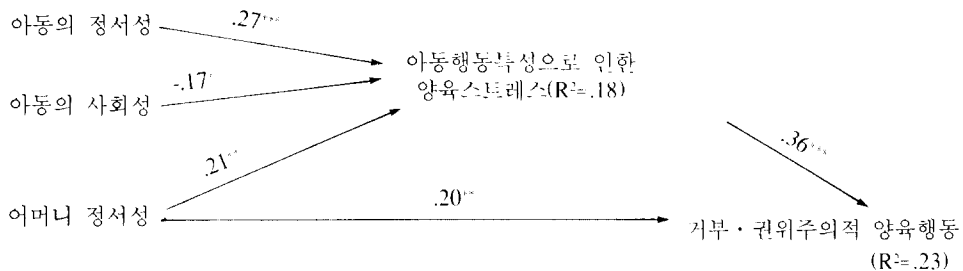


〈그림 3〉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정서성과 양육 스트레스요인의 예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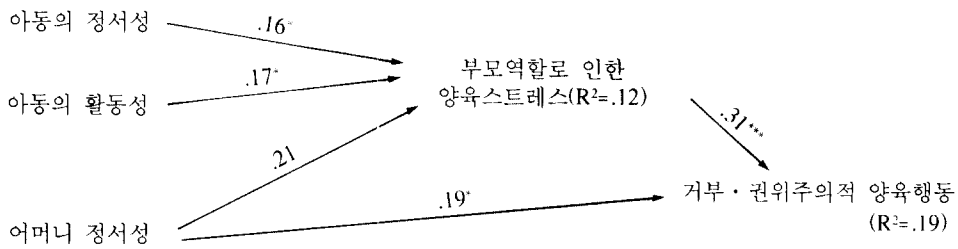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나, 아동이 까다롭고, 사회성이 낮을 때, 어머니의 정서성이 높을 때,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이는 다시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변인들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변량을 23% 설명하였다.

〈그림 5〉는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는데, 〈그림 4〉와 달리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것 외에는 마찬가지로 직접·간접의 경로를 나타내었고 이 모든 변인들의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9%였다.



〈그림 4〉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의 경로분석



〈그림 5〉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의 경로분석

〈표 2〉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아동행동특성 요인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인	총체적 관계 A	인 과 적 모 형			비인과적 효과 A-D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전체효과 D=(B+C)	
아동의 정서성	.10		.10	.10	.00
아동의 활동성	-.06				-.06
아동의 사회성	-.01		-.06	-.06	.05
어머니 정서성	.30	.20	.08	.28	.02
어머니 활동성	.14				.14
어머니 사회성	-.11				-.11
아동행동특성요인	.35	.36		.36	-.01

* 총체적 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표 3〉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모역할 요인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인	총체적 관계 A	인 과 적 모 형			비인과적 효과 A-D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전체효과 D=(B+C)	
아동의 정서성	.10		.05	.05	.05
아동의 활동성	-.06		.05	.05	-.11
아동의 사회성	-.01				-.01
어머니 정서성	.30	.19	.07	.26	.04
어머니 활동성	.14				.14
어머니 사회성	-.11				-.11
부모역할 요인	.32	.31		.31	.01

* 총체적 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본 경로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표 4>에 의하면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R^2=.12$), 어머니의 정서성($R^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5>에 의하면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R^2=.10$), 어머니의 정서성($R^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덜 반응적이고 민감하지 못하다는 선행연구(Conger, McCarthy, Yang, Lahey & Kropp, 1984)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임희수, 1994; 임양미, 1994)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아동이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낼수록, 어머니의 정서성이

<표 4>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유의한 제 변인들의 종다회귀분석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독립변인	B	β	R Square	Δ R Square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23	.36***	.12	.12
어머니 정서성	.17	.21**	.21	.09
아동의 정서성	.00	.00	.21	--
아동의 사회성	.03	.04	.21	-
(Constant)	.71			

F= 12.47 P<.001

<표 5>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유의한 제 변인들의 종다회귀분석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독립변인	B	β	R Square	Δ R Square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19	.32***	.10	.10
어머니 정서성	.17	.21**	.17	.07
아동의 정서성	.01	.02	.17	-
아동의 활동성	-.06	-.10	.18	.01
(Constant)	.71			

F= 9.44 P<.0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요소에 대한 모델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기질 중 정서성은 양육행동 중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인 정서성이 높을 수록, 어머니는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인

높을 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 아동의 사회성이 낮을 수록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 경우에는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즉, 아동이 쉽게 화를 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아동의 까다로운 행동특성을 의미하므로 어머니는 이에 대해 불만족할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동이 쉽게 화를 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질 경

우,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힘들게 느끼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반면에 아동행동특성과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에 어머니의 정서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쉽게 화를 내는 특성을 지녔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에도 회의를 가지므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어머니의 정서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한세영(1996)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행동특성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회의를 느끼는 어머니는 아동을 거부·권위주의적으로 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당한 양육행동을 한다는 박용임(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는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성과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관계는 양육 스트레스 변인이 통제될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성은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통제되면 어머니의 정서성과 양육행동의 관계는 약화된다. 그러므로 어머니 정서성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셋째,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아동의 기질은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양육 스트레스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한 통합적 예언력은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일 경우 23%,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일 경우는 19%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아동행동특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또는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정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반영되어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정서성이 아동의 행동특성을 지각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므로 양육행동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 스트레스나 지지를 주는 환경적 요소를 언급한 Belsky(1984)의 모델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Belsky의 과정모델보다는 Abidin(1990)의 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이 된다는 점을 나타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매개역할을 하므로써 성격이 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어느 정도 해답을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스트레스에 의해 완전한 매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타 다른 매개변인들의 작용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고성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1994, 21-37.
- 2) 박용임, 영아-어머니간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1995, 113-132.
- 3) 이 숙,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8.

- 4) 임양미,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5) 임희수,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6) 최희영, 한국 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7) 한세영,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 9) Abidin, R. 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 1992, 407-412.
- 10) Abidin, R. R.,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1990, 298-301.
- 11) Barkley, R. A., Hyperactivity. In Mash, E. J. & Terdul, L. G.(Eds.),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1981.
- 12)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986, 1173-1182.
- 13) Belsky, J.,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1984, 83-96.
- 14) Bettes, B. A.,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988, 1089-1096.
- 15) Buss, A. H., & Plomin, R., *Temperamental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Interscience, 1975.
- 16) _____,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1984.
- 17) Colleta, N. D., At risk for depression: A study of young moth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72, 1983, 301-310.
- 18) Conger, R., McCarthy, J., Yang, R., Lagey, B., & Kropp, J.,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984, 2234-2247.
- 19) Crnic, K. A. & Greenberg, M. T.,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990, 1628-1637.
- 20) Crockenberg, S. & Acredolo, C., Infant temperament ratings: A function of infants, or mothers, or bot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 1983, 61-72.
- 21) Cutrona, C. E., & Troutman, B. R.,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986, 1507-1518.
- 22) Dumas, J. E., & LaFrenter, P. J.,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f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993, 1732-1754.
- 23) Forehand, R. Lautenschlager, G., Faust, J., & Graziano., Parent perception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ve mood. *Behavior Research & Therapy*, 14, 1985, 1-3.
- 24)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25) Levitt, M. J., Wever, R. A., & Clark, M. C.,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986, 310-316.
- 26) Luster, T., & Okagaki, L.,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3, 101-120.
- 27) Milliones, J.,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978, 1255-1257.
- 28)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385-398.
- 29)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290-312.
- 30) Vondra, J., & Belsky,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3, 1-33.
- 31) Watson, D., & Clark,L.A.,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96, 1984, 465-490.